2021년 10월 30일

길라잡이 신문

미성숙한 존재, 아동

아동 심리 영상을 보면서...

지난 1학기 길라잡이에서 아동 심리 영상 감상 후 토의하기 활동이 있었다. 이는 아동을 가르치려면 먼저 아동에 대한 이해가 첫 째라고 생각하는 부원들의 의견에서 시작한 활동이다. 이로 같이 보게된 영상은 "EBS 도덕성 모방 실험"이었다. 이 실험 속 아동들은 3조로 나뉘어져 각자 다른 영상을 보게 된다. 1조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2조는 친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3조는 무관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봤다. 그 후 1조, 2조, 3조 아동을의 모습을 지켜본 결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본 1조 아동을은 인형을 때리거나 뿅망치를 휘두르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친절한 모습을 본 2조는 인형을 껴안아 주거나 쓰다듬어 주는 친절한 모습을 무관심한 모습을 본 3조는 인형에게 별 관심이 없고 혼자 노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본 길라잡이 동아리 부원들 중 1학년들은 "애 앞에선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라는 말이 생긴 이유처럼 어른이 하는 모습이나 보인 태도를 모방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정서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아동들 앞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아동들과 가장 많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게 선생님이니 선생님을 뽑을 때 전문성이나 인성 측면이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2학년들은 "무관심한 모습이 찍힌 영상을 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아동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만약 학급 혹은 반에서 왕따나 폭력이 일어났는데 선생님이 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이를 본 학급 아동들도 같은 태도를 보일까 봐 걱정이 되네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를 본 아동들도 왕따와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거고요." 하면서 우려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 3학년은 "그러니 미성숙한 아동들을 위해 우리 행동 하나, 하나에 신경을 세워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아동을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줘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아동들도 선생님도 다같이 학급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라며 토의를 마무리 했다. 이 활동 후 길라잡이 부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바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이다. 아동들을 위해 종사하는 직업을 꿈꾸는 만큼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고 싶은 부원들의 목표인 것이다.

김민성 기자

교구 만들기로 나만의 꿈을 그려 나간다.

지난 시간 길라잡이 내에서 교구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자신이 생각한 교구를 만들어 오거나 혹은 다른 부원들과 동아리 시간 내에 같이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마지막엔 부원들의 활동 평가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길라잡이는 이 활동의 목표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부원들은 각자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 혹은 하고 싶었던 활동과 관련된 교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또한 분야의 제한이 없어 부원들이 자신만의 관심사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하고 색다른교구들을 많이 만들었다. 실제 교구들을 보면 아동들의 감각과 생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구들이 주를 이뤘다.

다양한 활동에 대해

교구로는 종이접기를 이용한 교구가 있었다. 이로 튀어 오르는 개구리, 공기를 불어 넣어 완성하는 토끼가 있었다. 개구리 같은 경우 부원들과 직접 종이 개구리를 만들었으며 단순히 종이접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가누가 멀리 날아가나?"라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개구리를 이용하여 멀리 날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토끼 또한 단순히 종이만 접어서 끝나는게 아닌 공기를 넣어 부풀릴 수 있다는 점이 토끼에게 특별함을 더해 주었다. 종이접기 활동 후 부원들은 이처럼 종이접기를 이용하면 활동을 하는 학생들 혹은 아동에게 다양한 도형들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 도형을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계 활동으로 이어나간 게임은 학생, 아이들의 참여의식을 길러주며 창의력도 기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둘째로 한글 블록 활동이 있었다. 이는 한글 자음과 모음 블록을 이용하여 단어를 만드는 활동이다. 하지만 단순히 아는 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닌 퀴즈 속 지문들이 지시하는 하나의 답을 한글 블록으로 만드는 활 동이었다. 실제 문제로 예를 들면 "1.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빎, 2. 국수00(00에 들어가는 단어), 3. 과일나무의 열매"와 같이 지문들이 가리키는 한 단어를 빨리 만들면 되는 활동이다. 이 문제의 답은 '사과'이다. 이처럼 단순하고 난센스 같은 문제도 있는 반면 부원들도 쉽게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돼 있었다. 한글 블록 활동을 마친 부원들은 블록과 문제를 이용한 활동은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해주고 판단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글을 익히는 것을 놀이로 승화하였기에 아이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겠다며 만족감을 표하였다.

마지막 교구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세요!'이었다. 이는 토끼, 사자, 펭귄, 다람쥐가 그려져 있는 상자에 장난감 당근, 생선, 생고기, 도토리와 같은 음식을 알맞은 동물에게 주는 활동이었다. 이때 각 동물 상자는 입이 뚫려 있어 장난감 먹이를 넣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이를 한 부원들은 직접 제작한 게 대단하며 정성이 엄청나다, 아기자기하며 아동들이 이 활동을 직접 할 시, 게임처럼 쉽게 느껴져 누구나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동물들의 습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활동을 평가했다.

활동을 마친 후

교구 만들기 활동을 마친 길라잡이 동아리 부원들은 깊은 만족감을 표했다. 실제 한 부원은 "유아나 가정 관련 활동을 고등학교 내 수업 시간에 하는 건 힘들고 그런 활동이나 이벤트가 고등학교 내에 많이 있지도 않잖아요. 또 한다고 해도 제가 원하는 수업이 아닐 수도 있고…. 전 항상 그 점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교구 만들기 활동을 통해 너무도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었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공유할 수 있고 또다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받았고..(중략) 수업을 하면서 힘도 나고 특히 제가 수업을 구상했기에 제가 진짜로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단 점이 너무 맘에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길라잡이 동아리의 부장과 차장은 여기서 부원들이 얻어간 기쁨과 만족감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선생님이란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길 바라는 마음을 표했다.

안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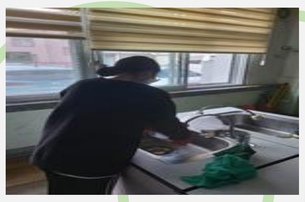
아동 가정 그 중심에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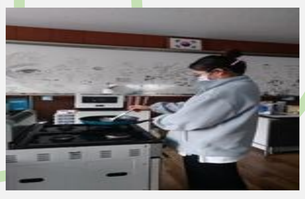
아동-가정 교육 동아리 길라잡이에 대하여..

길라잡이, 이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때 길은 단순히 사람이나 교통수단이 다니는 길의 의미 뿐만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아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물 어떤 목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침까지 아우르는 말이다. 이 동아리 의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꿈꾸는 학생들의 모임이다. 그만큼 이 동아리 속 활동들도 아동-가정 쪽에 맞춰져 있다. 실제 지금까지 길라잡이는 요리실습, 모의 수업, 교구만들기, 아동관련 영화보고 토의하기,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여러 봉사하기 등 선생님으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러 활동을 두루 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이 동아리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다.

길라잡이 기자 일동

요리 실습으로 경험을 쌓다





지난 1학기 길라잡이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직접 요리 실습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유아교육이나 가정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실습은 중요한 경험이란 부원들의 의견에서 착안한 활동이다. 그만큼 학생들은 실습에 진지한 태도로 활동에 임하였다. 요리 실습의 첫 시작은 메뉴 정하기였다. 학생들은 실제 있는 음식이나 혹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곁들인 메뉴를 아이디어로 제시하였다. 그중 실행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몸에도 좋은 후보를 추려내 떡볶이와 밥버거, 김치전과 샌드위치, 후식으론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핫케이크를 만들기로 하였다.

실습을 마친 부원들은 "처음엔 솔직히 신나고 재밌을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행하면 할수록 진짜 선생님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아이들을 고려해 음식을 선정할 때 그 느낌이 크게 들었어요. 요리를 만들 땐 모르는 것도 배우고 부원들에게 음식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며 서로 돕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실제 교사가 된 기분이었고 덕분에 가르치는 역량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같이 음식을 만들었기에 저희 사이에서도 협동심이 생기는 느낌도 들었고요. 한 번 경험의 차원으로 진행한 수업이 오히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실습일 날에 부원들은 자신만의 비전을 세우며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활동에 임하였다. 실제 부원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 수업이라면 불을 사용하기에 안전 지도나 돌발상황까지 염려하며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실습의 한 부분이니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좋아하고 수업에 호감을 느낄까?, 이를 실제 수업에 실행한다면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에 집중하며 실습에 임하려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요리하며 부원들은 자신의 음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돕고 협동하며 음식을 만들어갔다. 그렇게 완성된 음식은 길라잡이 부원들이 나눠 가지고 요리 실습 자리를 제공하고 도와주신 선생님들을 위해 나눠드렸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감정을 느끼니 후에 이런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이런 활동은 하기 힘들잖아요! 시식은 못 한 점이 아쉽지만 이런 실습을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이 활동으로 교사로서의 역량도 기르고 재밌는 활동도 할 수 있었으며 동아리 부원들끼리 더욱 돈독해진 것 같거든요." 라며 전했다. 이 요리 실습의 음식은 길라잡이 부원들에게 있어 단순한 음식의 의미로 그치지 않았다. 이는 잠시나마 선생님이 된 학생들의 열정과 수업에 대한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는 학생들의 의지의 산물이다. 이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실습이었지만 부원들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밝은 에너지가 돋보이는 활동이었다.

곽은지, 김상아 기자

캠페인으로 다가온 길라잡이

학생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유아동아리 길라잡이 캠페인 주제를 정하다

동아리 부원들끼리 모여서 캠페인 주제를 정했다. 여러 가지 캠페인 주제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캠페인을 실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던 아동학대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번 아동학대 사례는 예전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가정으로 나누어 찾아보았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생각을 말해보기도 하였다. 두 번째 주제로는 비행청소년이 선정되었다. 비행청소년이 발생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학생들이 생각하는 비행청소년 발생의 이유도 알아보기 위해 투표도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세 번째는 노키즈존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노키즈존은 예전부터 만들어야한다, 만들지 말아야 한다. 상반되는 입장이 모두 알맞은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길라잡이 부원들이 생각하는 노키즈존이 만들어진 이유, 노키즈존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 근거 그리고 비행청소년 발생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학생분들의 의견이 궁금했기 때문에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급식 영양분에 대해 라는 활동을 하였다. 한창 아이들이 균형잡힌 음식을 먹고 무럭무럭 커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양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신경써야하는 부분이라고 다들 생각했다. 그래서 동아리부원들이 여러 가지 영양기준표를 찾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팻말을 만든다고 한다.

길라잡이 캠페인 준비를하다

캠페인 주제를 결정하였고, 그에 맞는 자료도 조를 나누어 수집했기 때문에 이제는 팻말을 만든다고 한다. 아기자기하게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와 사례를 오려 붙였다. 그리고 투표를 참여하게 되면 선물로 줄 사탕을 다같이 포장했다.

캠페인 실시

캠페인은 점심시간에 다같이 모여 팻말을 들며 설명을 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준 다음 비행청소년의 발생 원인(가정적, 학업적 사회적요인) 노키즈존을 만들어야한다 (찬성반대)여부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리고 투표를 하게되면 포장을 했던 사탕을 선물로 주었다.

캠페인 결과

캠페인의 결과로 비행청소년의 발생 이유로는 가정적 변인 94%, 내적변인 3%, 사회적 변인 3%로 가정적 요인이 가장 많았다. 노키즈존 설치 여부의 결과는 노키즈존찬성이 약 13표 더 많이 나왔다. 투표결과를 통해 우리 길라잡이 부원들은 학생분들의 생각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말하였다.

김가연 기자

오늘 이 시간 나는 교사

앞 시간의 교구 만들기 활동에 힘입어 각자 전공의 모의수업을 진행하였다. 모의수업은 자신의 진로 전공에 맞춘 일부를 30분 내외로 수업하는 방식이다. 활동 진행은 각자의 수업 진행에 있어 필요한 교구, 학습지, 프레젠테이션 등을 준비하고 수업하며 마지막엔 부원들의 피드백을 받고, 서로의 느낀 점을 써서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모의수업의 목표는 "차질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계획성, 성실성, 준비도 등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 밝혔다.

부원들은 교과목의 제한 없이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을 체계적이고 질높은 수업을 준비했다. 모든 부원들의 수업을 참여하며 모두가 다른 수업 방식에 대하여 배울점이 많은 활동이 되었다고 밝혔다. 역사, 영어, 가정, 유아 등의 과목으로 진행하였으며 홍범도, 관계대명사, 우리나라의 주생활, 유아 교구 만들기 등의 주제로 수업하였다.

유아와 가정, 초등의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인 길라잡이의 동아리에선 빠질 수 없는 활동이다. 부원들은 교과목의 제한 없이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을 체계적이고 질높은 수업을 준비했다. 모든 부원들의 수업을 참여하며 서로의 수업 방식을 이해하였다.

정아연 기자

길라잡이 오늘의 코너

길라잡이 사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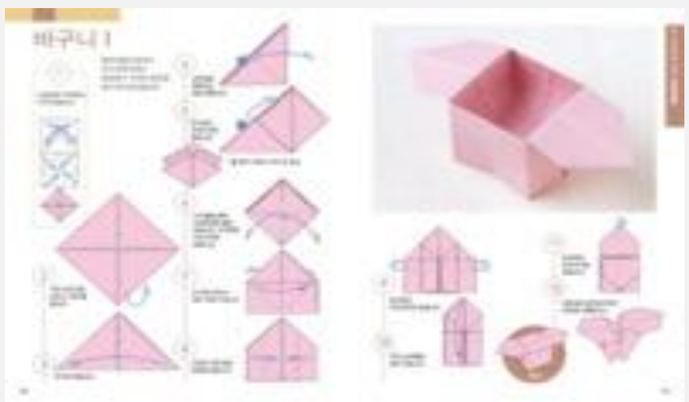
길라잡이

길: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

라: (라) 아직 실망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잡: 잡을 손을 건네어 위로해 줄 수 있는 모습

이: 이처럼 따스함이 모여 만들어진 곳, 길라잡이

길라잡이 종이접기

다같이 배워보자!!